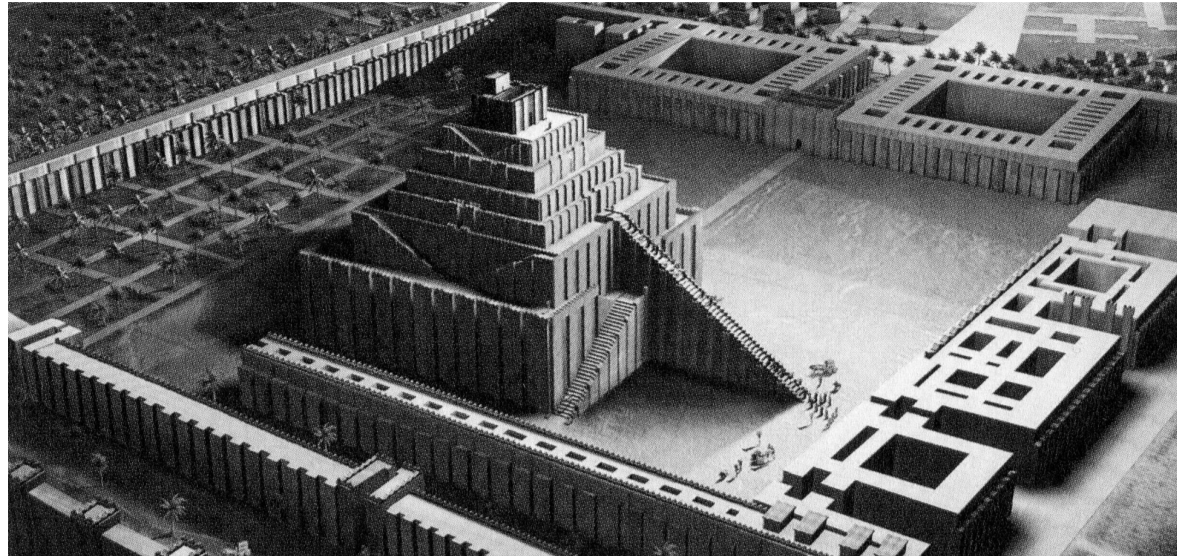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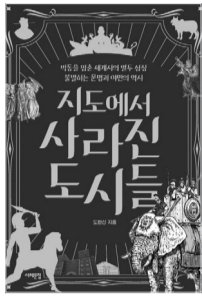


바빌론과 페르세폴리스는 어떻게 사라졌나

지도에서 사라진 도시들

도현신 지음

다음에 말하는 도시는 어디일까? 성경에 약의 소굴이자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 명명된 곳. 바로 바빌론이다. 기원전 17세기부터 1000년간 흥망을 거듭했으며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를 호령한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였다. 가장 오래된 성문법 가운데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을 운용할 만큼 문명의 도시였다.



‘바벨탑’으로 알려진 바빌론의 마르두크 지구라트는 높이와 넓이가 각각 91m에 달하는 정방형 건축물이다. 기록에 따라 3D 이미지로 구현했으며, 실제 건축물은 진흙을 구워 벽돌로 만들었다고 한다. (서해문집 제공)

해 인류를 사로잡은 철학자의 상상이 깃든 아틀란티스, 인더스 문명의 우듬지 모헨조다로 등 모두 12개 도시 이야기가 나온다. 사라진 도시들의 흔적을 찾는 과정은 ‘인류 역사의 위대함과 초라함을 한눈에 들여다보는 여정’이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세계의 수도, 문명의 고도’는 세계를 호령한 옛 제국의 심장을 다룬다. 태양 아래 가장 부유한 도시라 여겨지던 페르세폴리스는 기원전 5세기경 지금의 이란을 거점으로 중동을 통일한 페르시아의 수도다. 1933년부터 5년간 발굴 조사를 진행한 독일 고고학자들은 3만개가 넘는 점토판을 출토했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기원전 6세기부터 200년간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추정된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한 뒤 차지한 금화만 3000톤에 달한다. 동시대 그리스 도시국가 중 가장 부유했던 아테네 1년 재정의 300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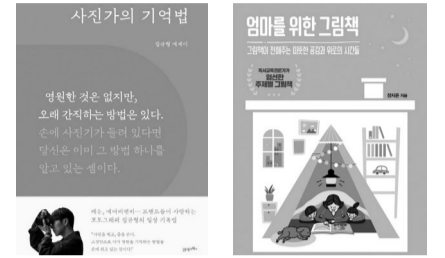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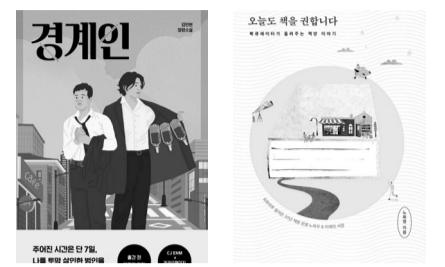
비슷한 재정이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발행했던 달릭 금화는 오늘날 기축통화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2부 ‘신의 도시, 인간의 도시’에는 신화 속 도시의 진실을 찾는 데 방점이 놓여 있다. 신의 노여움을 사서 멸망했다는 전설의 도시 소돔, 신과 인간이 만든 불멸의 드라마로 일컫는 트로이 등이 나온다.

특히 불후의 고전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무대이자 그리스신화 대단원을 장식한 트로이는 지금도 다양한 작품에 차용된다. 1873년 터키 서부에서 3년의 발굴 끝에 트로이의 유적층이 발견돼, 트로이 전쟁 무대가 실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비록 지도상에서 사라졌지만 트로이는 문화사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스-로마 문명의 근원이 담긴” 스토리로, 오늘날까지 공유되는 역사적 감수성을 만들었다. (서해문집·1만39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경계인=렌카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김민현이 쓴 미스터리 판타지다. 토막 살해된 회사원이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죽음의 진실을 추적한다는 내용이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관한 디테일한 묘사, 촘촘한 구성과 복선, 매력적인 캐릭터와 흡입력 있는 전개로 기대를 모으면서 출간 전 웹툰 제작이 확정됐다. 카카오페이지와 CJ ENM이 주최한 제3회 추미스 소설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았다. (스윙테일·1만5800원)



▲오늘도 책을 권합니다=20년을 한결 같이 독자와 만나온 동네 책방의 운영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어린이·청소년 전문 책방 ‘곰곰이’를 운영중인 노희정은 책방 차리는 법, 독자와 소통하는 법, 책방지기가 지켜야 할 운영 원칙, 북 큐레이터의 역할, 유통, 책방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등 지속 가능한 책방을 위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소통·1만5000원)

▲사지인의 기억법=전시와 강연, SNS 등 채널을 가리지 않고 폭 넓게 사진을 선보이는 포토그래퍼 김규형의 에세이다. 그는 영원한 것은 없지만, 그것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방법은 있다며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순간, 영원을 사로잡는 방법 하나를 손에 쥐고 있는 셈이라고 말한다. 잘

나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는 사지인의 관점을 감성적이고 유쾌한 문체와 사진으로 선보인다. <21세기북스·1만6000원>

▲엄마를 위한 그림책=한우리 독서지도사 장지은이 주제별로 그림책을 선정해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선물한다. 아이가 자기 전에 머리맡에서 읽어주었던 수많은 그림책들.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저자는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 그림책 읽기의 큰 장점이라며 책장을 덮으며 사랑, 성장, 행복 등의 인생철학을 배울 수 있다고 전한다. (정향책방·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돌아온 유튜브 스타 금은동=‘유튜브 스타 금은동’의 후속작이다. 유튜브 스타를 꿈꾸는 초등학교 금은동. 과거 조회수를 높이려고 자극적인 동영상을 찍어 올렸다가 악플 세례를 받았지만 유튜브 채널 수창 TV에 출연해 유명해졌다. 자신의 영상에 관심을 갖고 따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인플루언서(파워블로거)로 성장한 주인공을 통해 선한 영향력의 방향성을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국민서관·1만2000원)

종류와 특징, 무대에서 긴장하지 않는 방법까지 음악에 관한 모든 궁금증들을 해설과 일러스트로 설명해 준다. 책 속에 담긴 QR코드를 통해 책 속에 등장하는 음악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 (갈벗어린이·1만8000원)

▲스쿨 오브 뮤직=우리는 의식하던 하지 않던 항상 음악과 함께한다. 각각의 캐릭터를 가진 가상의 선생님 6명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의 역사부터 음악을 만드는 방법, 음악과 수학의 관계, 다양한 악기의

▲오토의 틸스웨터=멋진 오토를 볼 수 있는 추운 북쪽 나라에 사는 스라소니 리사와 곰 님스,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사는 여우원숭이 오토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며 우정을 나눈다. 리사와 님스는 오토를 위해 스웨터 만드는 법도 배운다. 작가는 세 동물 친구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에피소드를 통해 포용과 나눔의 의미를 전한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도전과 용기로 예술혼 꽃피운 불굴의 여성 예술가들

여자의 미술관

정하윤 지음

지난해 처음 알게 된 여성 작가가 있다. 스웨덴 출신의 힐마 아프 클린트(1862-1944). 낮선 이름의 작가인데, 다큐 영화 ‘힐마 아프 클린트-미래를 위한 그림’이 개봉해 작품과 일대기를 찾아보게 됐다. 그녀는 추상미술의 대명사로 꼽히는 칸딘스키, 몬드리안, 말레비치보다 앞서 추상작품을 그린 이였다. 하지만 미술의 변방으로 불리는 북유럽 작가에, 여성이었기에 그는 주류 미술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작가는 이런 유연을 남겼다. ‘내가 죽은 뒤 20년 동안 대중들에

게 작품을 보이지 말라. 나의 작품을 미래에 기증한다.’ ‘성전을 위한 그림 시리즈’ 등 세상이 그녀를 알아본 데는 42년의 세월이 흘렀다. 1986년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 2018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회고전을 통해서다.

힐마 아프 클린트의 이야기는 신간 ‘여자의 미술관-자기다움을 완성한 근현대 여성 예술가들’에서 다시 만나 반가웠다. ‘여자의 미술관’은 저자가 오랫동안 눈여겨 본 여성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용기를 전하는 책이다. 이화여대 회화과, 동대학원 미술사학과를 거쳐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중국 현대미술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정하윤은 ‘엄마의 시간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커튼콜 한국 현대미술’ 등을 썼다.

책에 등장하는 여성 미술가는 모두 15명이다. 프리다 칼로, 조지아 오키프, 케텐 콜비츠 등 친숙한 이름들도 있고, 소니아 들로네, 메리언 노스 등 조금 낯선 이름도 보인다. 특히 1920년대 결혼한 여성으로 작품활동에 매진했던 정강자, 정찬영 등 한국 작가의 ‘발견’이 반갑다. 교통사고 때문에 서른 번이 넘는 수술을 하고 평생 척

추 받침대를 하고 살아야했던 프리다 칼로는 미술사 속 ‘고통의 아이콘’으로 불릴 만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는 뚜렷한 예술관을 만들어갔으며 마지막 작품으로 ‘살아여, 만세(Viva La Vida)’라는 멋진 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책에서는 평생 환각 증세에 시달렸고, 지금도 병원과 건너편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오가며 작업을 하는 쿠사마 야요이, 신경쇠약, 자살 시도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뒤 작업을 통해 삶을 긍정한 후 미술이 갖고 있던 치유의 힘을 믿고 많은 사람과 나누려 한 ‘나나’의 작가 니키트 생팔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팝 스타 존 레논의 ‘나나’에 머물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일궈간 오노 요코, ‘누군가의 여인’이 아닌 한 명의 예술가로 굳건히 자리한 조지아 오키프,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자신의 삶과 작품 세계를 지켜낸 마리 로랑생, 거대한 거미 설치 작품 ‘마방’을 통해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루이스 부르주아 등도 소개된다. (북트리거·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